

SK케미칼, 생명과학사업 독립운영

SK제약에서 생명과학부문으로 ... 신승권 동신제약 대표이사 겸임

SK케미칼에 흡수·합병된 SK제약은 4월1일부터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SK Chemicals Life Science)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3월31일 발표했다.

생명과학부문 대표에는 SK제약 마케팅담당 상무와 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2004년부터 SK제약 대표이사를 맡아온 신승권씨가 다시 선임됐다.

신승권 대표는 2004년 SK제약의 계열사로 편입된 동신제약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SK는 현재 동신제약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제약사업 명칭이 생명과학부문으로 정해진 것은 SK케미칼의 차세대 주성장 동력을 생명과학에서 찾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4/01>